

## 1. 모두발언

-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,
  - 고금리,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,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.
  - ①상환연장, ②저금리 대환대출, ③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전기료·배달·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
    -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.
  - 또한,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·재창업을 연계 지원하여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
- 우선, ‘착한 선구매·선결제’ 캠페인(3.13~4.12)을 추진하겠습니다.
  - 정부·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 
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,  
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.

- 또한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  
(주1~2회 이상)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 
단말기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 설치 의무\*와 관련해서는, 관계기관이  
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.

\* '26.1.28일부터는 50m<sup>2</sup>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 
배리어프리 키오스크(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고가)로 교체의무 발생(장애인차별금지법)

-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(20%, 3.17~28), 영세 소상공인  
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(25→10%),  
음식점업 고용허가제(E-9)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\* 검토 등  
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.

\* (현재) 주방보조(설거지·상치우기)만 가능 → (개선) 홀서빙 등 타 업무 가능

-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금일 추가보완 방안의  
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,  
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

- 이어서, 중기부 장관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.